

광양시, '산업관광 시티투어'로 관광 활성화

내달 6일부터 코스 운영...하반기 체류형 콘텐츠 확대 제철산업·항만·관광자원 연계...“지역 성장 과정 담아”

광양시가 산업과 관광을 잇는 산업관광 시티투어를 통해 관광객 유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21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6일부터 지역의 핵심 산업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광양 산업관광 시티투어' 코스를 운영한다.

이번 코스는 광양시티투어에서 처음 선보이는 산업관광 테마로, 철강·항만·해양 관광 자원을 하나의 동선으로 연결해 산업 도시 광양의 가치와 매력을 체험할 수 있

게 구성됐다.

학생과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단체 방문객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 해설사가 전 일정에 동행해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 도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한다.

투어는 오전 9시30분 순천역을 출발해 중마관광안내소를 거쳐 Park1538 광양, 이순신대교 먹거리타운 및 광양수산물유통센터(중식), 이순신대교 홍보관(묘



도),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관 등을 방문한 뒤 오후 3시 10분 순천역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운영된다.

코스에 포함된 주요 홍보관이 평일에만 운영되는 점을 고려해 시티투어도 평일 중심으로 운영되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진행

되지 않는다.

광양시티투어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출발일 기준 3일 전 예약을 마감하고 10명 이상 모집 시 출발한다.

이용요금은 일반 5000원, 군인·경로·학생 4000원, 미취학아동·장애인 3000원이다. 예약 문의는 전화 (061-763-2201~4)로 하면 된다.

특히 산업관광 코스는 홍보관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조율이 필요한 만큼, 운영 여부를 출발일 기준 최소 2주 전에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출발 2주 전까지 예약을 마쳐야 한다.

시는 구봉산 일원에 조성 중인 체류형 조형물이 하반기 개장하면 이를 시티투어

코스에 반영해 산업·관광·체험이 결합된 체류형 관광 콘텐츠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산업관광 시티투어는 광양의 제철산업과 항만 기반을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시도다”며 “앞으로도 산업현장을 광양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을 함께 보여주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티투어는 산업관광 코스를 비롯해 야경·힐링·역사 등 다양한 테마로 운영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관광 누리집 '여행준비'의 '시티투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



“함마음으로 뭉치면 할 수 있다” 장흥군 부산면은 최근 심천공원 잔디구장에서 출향 향우와 지역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회 부산면민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부산면민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풍물놀이와 리민댄스를 시작으로 제1부 기념식, 제2부 마을별 체육경기, 제3부 주민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으며, 모두가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사진제공=장흥군청

곡성,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 제공

55명 초등학생 공감·소통의 장 기대

곡성군은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연주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꿈키움 드림 오케스트라’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취약계층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곡성·끝나래·석곡·주산·전남과학대 지역아동센터에서 클래식 교육을 희망하는 아이들을 모집해 전문 강사진이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참여자는 곡성권역 32명, 옥과권역 10명, 석곡권역 13명 등 총 55명으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플루트 등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있다. 아이들은 1년간 갈고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오는 12월 발표회를 앞두고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원불교가 주관한 ‘곡성군민을 위한 나눔문화축제’, ‘세월호참사 12주기 추모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펼치며, 음악을 통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참여 학생들이 중학교 진학 후 곡성군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유빈 기자 hnnews1@



장흥, AI·IoT 기술 활용 스마트 건강 시대 ‘활짝’

65세 이상 150명 선착순 관리 대상 모집...헬스케어 추진

장흥군이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IoT(인공지능·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스스로 건강 관리 역량을 높이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 사업은 보건소 간호사와 어르신 150명이 함께한 6개월

간의 건강 프로젝트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운영 결과 참여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개선율과 당뇨 조절률 등 주요 건강 지표가 향상됐으며,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6%라는 압도적인 긍정 평가를 얻으며 실효성을 입증했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만성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 건강평가 결과에 따라 블루투스 디바이스(손목활동량계, 체성분계, 혈압계, 혈당계)를 선별 제공받고 스스로 건강측정, 건강생활 습관을 실천하게 된다.

스마트폰 ‘오늘건강 앱’을 통해 수집된 건강데이터를 기반으로 보건소 건강전문가(간호사)에게 맞춤형 비대면 건강상담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특히 어르신들 스스로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매일 걷기, 규칙적으로 혈압측정하기 등 맞춤형 건강미

션을 부여하고, 미션달성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장흥군보건소 방문보건팀(061-860-6414)에 전화 신청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AI·IoT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어르신 스스로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311@gwangnam.co.kr

보성, 학생차예절경연대회 참가자 모집

24일까지 접수...내달 1일 한국차문화공원에서 개최

보성군은 오는 24일 ‘학생차예절경연대회’에 참가할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전통 차문화의 계승과 청소년들의 올바른 예절 함양을 위해 마련된 행사로, 참가 신청은 이메일 또는 등기 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참가 대상은 전국 초·중·고등학생이다.

대회는 다음달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 주무대에서 열리며, 초등부와 중·고등부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심사는 차 예절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주요 평가 항목은 한복 착용 상태, 다구를 다루는 태도, 절하는 예절, 차를 내는 과정에서 숙련도와 조화 등이다.

금상 수상자에게는 전남도교육감이 수여되고 부상으로 3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



대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상군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은 “이번 경연대회는 청소년들이 전통 차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예절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전국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성=임태형 기자 limth66@gwangnam.co.kr

여수, 지역사랑상품권 160억 발행

내달 12% 특별할인·이용한도 개편...지역 소비 활력

여수시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위축된 지역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연간 발행 규모를 기존 1100억원에서 1225억원으로 늘리며, 가족 단위 소비가 집중되는 5월에는 전월(60억원)보다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총 160억원의 규모로 상품권을 발행한다.

특히 100억원 규모의 특별할인을 통해 12%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해당 물량이 소진될 경우 다음날부터는 10% 할인 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소비 진작 분위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특별할인은 5월 7일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 지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는 특정 인원의 과도

한 구매를 방지하고, 신속한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이다.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으로 유지되되 보유 한도는 기존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상품권의 과도한 축적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소비로 이어지도록 한다.

또한 일부 이용자의 중복 구매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연간 총 구매 한도를 1인당 300만원으로 새롭게 설정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발행 확대는 고품질 상품 속에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순천, 매실 가공·저장시설 운영

1~2차 가공 가능...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순천시는 매실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농가도 직접 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승주읍에 위치한 매실 가공·저장시설을 4월부터 12월

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기간 동안 가공시설·저장시설을 갖춰 추지 못한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시설·장비 사용을 무료로 제공하며,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순천시 친환경농업과에 방문하거나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공시설에서는 매실 원물을 세척·탈수·씨 분리하는 등의 1차 가공은 물론, 절

임기·배합기·건조기 등을 활용해 매실청, 건과일, 과일잼 등을 생산하는 2차 가공까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업과(061-749-8876)로 문의하면 된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설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가공품 생산이 어려웠던 소규모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순천시는 매실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 농가도 직접 가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승주읍에 위치한 매실 가공·저장시설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은 매실가공 저장시설 내부 모습. 사진제공=순천시청